선교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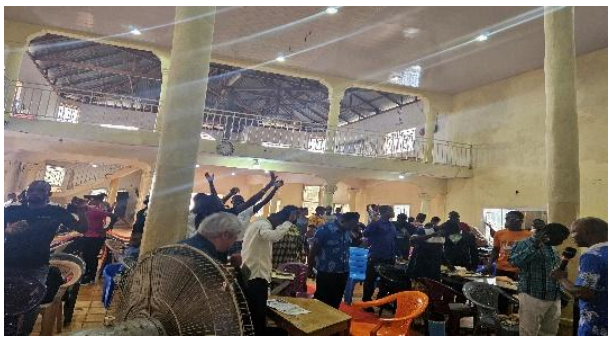
미전도종족(UUPG)을 섬기는 GAP 선교회 안강희선교사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종족을 위한 기도편지

시에라리온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개척 선교사 훈련에 고등학생과 청년 70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 누린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 년 전 이 척박한 시에라리온 땅에 들어와 10 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신 최진욱목사님과 박희숙사모님이 세운 제자들과 교회를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난 2024 년에 네팔에서 한 달간 훈련을 받은 프란시스 목사님과 아부 목사님은 10 명의 제자를 훈련하여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파송해 왔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목사님은 제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시에라리온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란시스 목사님의 교회는 빈민촌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프리타운 공항에 내려 배를 탄 후에 다시 차를 타야 했습니다. 교회는 달동네 빈민촌 사람들이 모여 사는 250 미터 산꼭대기에 있어서, 매일 40 분 넘게 오르내리는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저와 일행들이 머문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밤에 일어나 쥐를 잡기까지 해야 했습니다(쥐는 제가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있을 때에 단기선교를 오신 한 여집사님이 호텔 방에서 쥐에게 물린 적도 있어서...).

이 곳에 들어와 교회를 세운 아부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려고 호텔 차를 빌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자마자 우리 차가 릭샤와 충돌해 앞 범퍼가 부서졌고, 두 운전자는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가 모임 장소에 속히 도착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고, 우리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부 목사님은 교회와 학교를 운영하며 다섯 명의 목회자를 길러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개척한 교회 중 두 곳은 목회자가 없어 마을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신자들을 돌보도록 요청했으며, 사역자를 도울 계획입니다.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통에 물을 채워 언덕 위로 나르고, 쌀과 밀가루 등 모든 물품을 머리와 등에 지고 올라갑니다. 저희는 빈손으로 올라가는데도 여러 번 쉬어야 했고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교회에는 우물과 보수가 필요합니다. 우물을 파는 데 $2,500(약 340 만 원), 교회 건물을 보수하는 데 $2,100(약 300 만 원)이 듭니다.

시에라리온은 인구의 15%가 기독교인이고 60%가 이슬람교도이지만, 여전히 전도가 자유로운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두신 지금, 일꾼들이 파송되고 추수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한 달간 청년들을 모아 훈련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시에라리온에 예수훈련원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HAPPY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며...

2026 년 11 월 25 일
안강희선교사 & 안성자선교사 드립니다.